

# 제사공간으로서 장백산의 문화경관적 해석

허종화\* · 성종상\*\*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Cultural Landscape Analysis of Changbai Mountain as Sacrifice Space

Xu, Zhong-Hua\* · Sung, Jong-Sang\*\*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sacrifice space building in the Changbai Mountain area to a specific era in terms of the cultural landscape. The scared of Changbai Mountain how changes in history came despite the regime and national chang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 was the scared mainta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placement of the regime in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Qing period, ethnic diversity, underwent a cultural acceptance. So Changbai Mountain nature of sacrifice, the divine subject has formed the changes. Second, the Qing Royal sacrifice space Wangji Temple(望祭殿) have formed a unique cultural space and the sacrifice of authoritative content with only space. The Republic of China period, a new folk beliefs were born between the defense in the face of the Han Chinese migration and settlement process. Build Sacrifice space of Rulai Temple(如來寺) and Shanshenlaobatou Temple(山神老把頭廟). Third,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 and the Changbai Mountain area Wangji Temple(望祭殿) is the power of space as vertical space. Rulai Temple(如來寺), Shanshenlaobatou Temple(山神老把頭廟) is located in the Changbai Mountain and horizontal space was obedient to the space. Fourth, the sacrifice ritual Wangji Temple(望祭殿) of the Qing Dynasty is the only ritual sacrifice of satisfaction. It is cut off depending on the abolition of imperial power. Currently, public ritual sacrifice is commonplace rituals and sacrifices of the Qing Dynasty is only formally underway. In conclusion, as it has been maintained for the sanctity historically Changbai Mountain. Changbai Mountain sacrifice space was changing through the acceptance of the replacement of the regime and culture of ethnic offerings from a single culture of the Qing Dynasty. Currently, to form a sacrifice space and culture overlap through a mutually acceptable.

*Key words: Culture Landscape, Scared Space, Wangji Temple, Rulai Temple, Shanshenlaobatou Temple*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특정한 시대에 장백산 지역에 조성된 제사공간을 문화경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장백산의 신성성이 역사 속에서의 변화과정과 정권의 교체와 민족의 변화 속에서도 신성성이 유지된 이유에 대하여 해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시기로 과도하면서 겪은 정권의 교체와 민족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의 수용성으로 인하여 장백산의 제사성격과 신적대상이 변화했다. 둘째, 청나라의 황가 제사공간인 망제전(望祭殿)은 권위적인 공간으로 만족만의 유일한 제사공간과 문화를 형성했고 중화민국 시기에는 한족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겪으면서 방산인 사이에서 새로운 민간신앙이 탄생했으며 따라서 제사공간인 여래사(如來寺), 산신노파두묘(山神老把頭廟)가 조성되었다. 셋째, 제사공간과 장백산을 공간적으로 보면 망제전은 수직적인 공간으로 권력적인 공간이고 여래사와 팔괘묘는 장백산과 수평적인 공간에 입지되어 순종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사의례를 보면 청나라의 망제전은 만족만의 유일한 제사의례이지만 황권의 폐지에 따라 단절되었다. 현재는 민간제사의례가 일상화 되어있고 청나라의 제사의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장백산에 대한 신성성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백산 제사공간은 청나라의 단일한 제사문화에서 정권의 교체와 다민족의 문화에 대한 수용을 거쳐 변화하였다. 현재는 상호수용을 통하여 중첩된 제사공간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주제어: 문화경관, 신성한 공간, 망제전, 여래사, 산신노파두묘*

† **Corresponding Author** : Sung, Jong-S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423, E-mail: jssung@snu.ac.kr

## I. 서론

장백산<sup>1)</sup> 지역은 중국의 명산으로 1980년 유네스코(UNESCO)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세계 생물권 보류지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1]. 장백산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것은 대상지에서 생활하고 거주했던 소수민족이 장백산을 신성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장백산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크게 관광학 분야, 생태학 분야 및 역사학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관광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Zhao(2010) 장백산 여행지 관광객 만족도 조사, Yang(2012) 장백산 지역 브랜드 형성과정 및 대책, Gao(2010) 장백산 관광산업 형성과정 및 변화, Zhang(2012) 장백산 문화관광 자원 개발 연구 등이 있다.

생태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Guan(2013) 장백산 자연보호구 야생동물 보호 성과 및 적응규모, Guo(2007) 장백산 지구 산림경관 구조 및 생태계획, Lv(2010) 관광개발이 장백산 자연보호구역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Zhang(2007) 장백산 문화개설, Liu(2003) 장백산 문화의 범위에 대한 확정, Liu(2010) 만족문화의 근원 장백산 등이 있다.

관광학, 생태학, 역사학 분야에서 장백산 지역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장백산 지역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조법중(2009) 한국 고층세 백두산신앙에 대한 서술, Li(2000) 청나라 장백산 봉선(封禪)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장백산을 대상으로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제사공간과 장백산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장백산의 신성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권의 교체와 민족의 변화가 장백산의 제사공간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백산을 중심으로 파생한 제사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문화경관적 시각으로 장백산이 가지는 신성성을 해석하려고 한다. 장백산의 제사공간을 역사적 시간이 중첩된 흔적이 쌓인 결과물로 보고 문화경관 이론 중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헌을 통해 제사공간의 시대별 특성을 고찰하는 관점 및 제사공간과 장백산의 상호관계를 시간의 축을 통해 변화과정을 밝히고 해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제사공간에 의한 장백산 신성성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오는 다층적인 개념 및 의미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문화경관으로서 그의 역사적 층위와 가치를 밝힐 수 있다.

## II. 연구범위 및 방법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장백산과 그 주변의 제사공간 유적이 분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사공간은 역사적으로 장백산을 신적 대상으로 제사를 지낸 망제전(望祭殿), 여래사(如來寺), 산신노파두묘(山神老把頭廟)로 한정한다.

장백산은 길림성 동남부 안도현(安圖縣), 푸송현(撫松縣), 장백자치현(長白自治縣) 세 개 현(縣)의 경내(境內)에 위치하고 동남쪽으로는 북한과 인접한다. 지리적 위치는 동경 127°40'~128°16', 북위 41°35'~42°25'이다[1].

망제전은 길림시 풍만구의 소백산 위에 위치하고, 여래사는 길림성 백산시 푸송현 푸송진에 위치하며 산신노파두묘는 길림성 백산시 푸송현 일대에 위치한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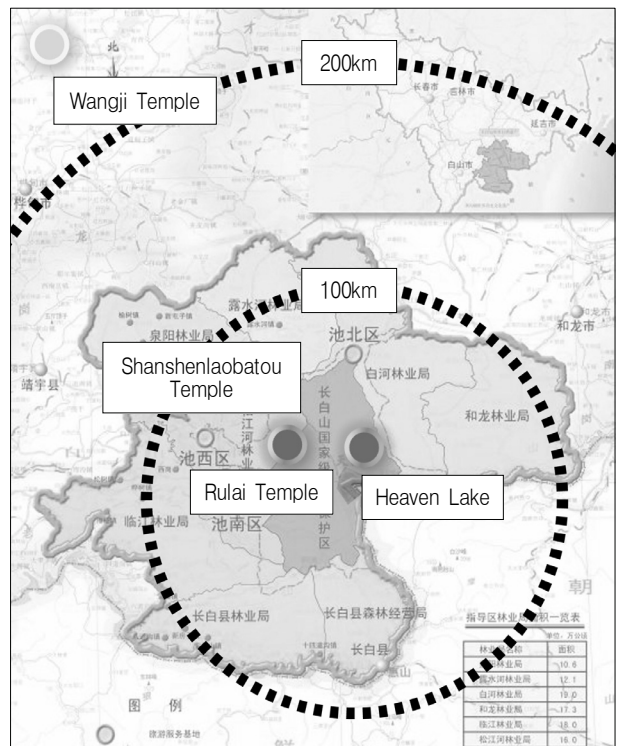


Figure 1. Specific boundaries of Sacrifice Space (Author according to Changbai Mountain tourism planning map re-drawn)

###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장백산 제사공간이 시간의 누적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므로 통시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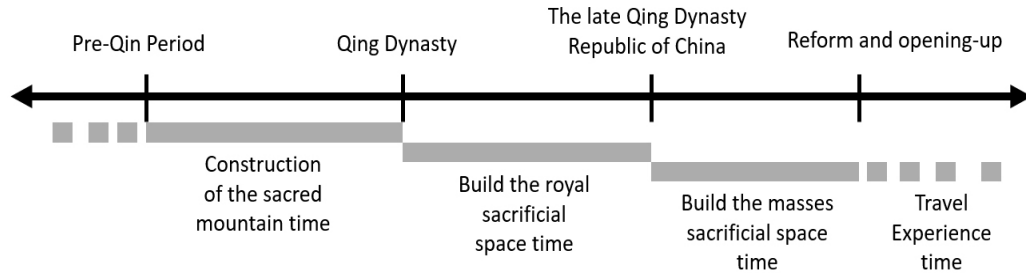


Figure 2. Time Range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2). 신성한 산으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청나라 이전의 시기, 황실의 제사공간인 청나라 시기, 민간의 제사공간인 중화민국시기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장백산 제사공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제사공간으로 장백산의 신성성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된다. 첫째, 장백산 제사공간이 조성되기 전에 신성한 산으로의 장백산 의미해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는 장백산이 오래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역사의 다층적인 구조 속에서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장백산 제사공간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주로 청나라 제사의식과 제사 장소를 선정하여 장백산이 황가의 제사공간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려고 한다. 또한 중화민국시기 민간 제사공간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한다. 따라서 황가에서 민간으로 이전된 제사공간의 특징에 대해 해석할 것이다. 셋째,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우선 장백산이 가지는 신성성이 특정된 시대의 정책과 민족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 형성된 제사공간의 변화에 대하여 해석할 것이다.

###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중국고문헌, 학술논문과 매체자료를 참고하여 이루어 졌다. 중국 고문헌으로는 『산해경(山海經)』, 『청실록(淸實錄)』, 『금단국지(契丹國志)』, 『통전(通典)』, 『금사사기(金史史記)』, 『皇朝文獻通考(황조문헌통고)』, 『장백산지(長白山志)』, 『태산용맥론(泰山龍脈論)』를 참고하였고 그 외에 학위논문, 학술 논문 게재 논문을 참고하였다. 매체자료로서는 신문기사, 고지도, 장백산 관광계획도 등을 이용하였다.

## III. 이론적 고찰

### 1. 제사

제사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이다[2].

제사형식으로는 천지 만물의 생성화육(生成化育)에 대한 외경심, 신비감을 갖는 동시에 생물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 하늘(天)·땅(地)·해(日)·달(月)·별(星辰)·산(山)·강(川)과 그 밖의 자연물에 초인적인 힘이나 신통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삶의 안녕과 복을 비는 의식; 조령(祖靈)에 대한 외경심과 조상 숭배 사상이 합치되어 조상을 추모하고 자손의 번영,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행사 등이 존재한다[2].

봉건시대의 황제는 권력이 무궁한 조상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사의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중 봉선은 가장 큰 제사의례로서 천명을 받아 왕위에 오른다는 의식 하에 행하는 의례이다. 봉선(封禪)에서 봉(封)은 “제천”, 선(禪)은 “제지(祭地)”를 가리킨다[3]. 중국고대제왕이 태평성세 혹은 하늘에서 상서가 강림할 시기에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대형의식이다. 고대 황제들은 태산에 가서 봉선의식을 가져야만 천명을 받아 왕위에 오른 것으로 인식하였다[3]. 이로부터 특정한 산은 하늘이 신의 권리를 부여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제사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나중에는 조상숭배를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과시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장소의 자연환경과 대상이 신성한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2. 문화경관

오토 슬뤼터는(O. Schluter) 1906년에 “경관은 그의 형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사회, 경제 및 정신적 힘이 있다”는 문화경관형태의 개념을 제시했다[4]. 그는 역사적 시각에서 경관을 분석했으며 인류의 활동을 통해 큰 변화를 겪기 전의 원시경관에서 인류문화를 통해 창조된 경관 즉 문화경관으로



전변되는 과정을 연구했다.

칼 사우어(Carl Sauer)는 “인류가 그들만의 문화적 표준으로 자연환경의 자연과 생물현상에 영향을 가하여 문화경관을 형성한다.”고 제기했다. 문화경관 연구의 목적은 경관을 관찰, 기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문화라는 힘 또는 매개체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 즉 문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5].

마이크 크랭(Mike Crang)은 희미하게 지워진 경관을 팰림 세스트(palimpsest)에 비유했다. 팰림세스트는 종이 귀했던 유럽에서 종이 대신 사용했던 양피지(parchment)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글씨들을 가리킨다. 양피지가 워낙 귀해 전에 썼던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글을 덧쓰곤 했는데, 희미하게 지워진 것들과 그 위에 덮어쓴 글씨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팰림세스트다[6].

세계문화유산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문화경관은 인류와 자연의 공동의 걸작으로서, 인류 및 그가 처한 자연 환경 간에 나타난 다양한 상호작용을 말한다고 정의된다[7]. 또한 문화경관은 인류사회 및 주거지가 자연의 제한과 영향 하에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 진화한 것을 증명하며 사회, 경제 및 문화의 외적, 내적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였다[7].

문화경관에 대한 문화지리학의 견해와 세계문화유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연과 문화를 대립이 아닌 하나로 인식하고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논하고 있다. 한 장소나 대상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형성된 다층적인 문화와 경관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경관 변천과정에서 사회적 배경, 문화적 표준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장백산 제사공간을 문화와 경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활동적, 의미적 세 부분에 대해 해석하여 특성을 도출하려고 한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변화과정을 밝히고 신성성이 유지된 이유에 대하여 해석하려 한다. 물리적으로는 제사공간이 장백산과 가지는 풍수적인 관계를 고찰하고 활동적 부분은 제사공간에서 이루어진 제사행위와 의식을 고찰하여 특성을 도출하고 의미적 부분은 제사공간이 장백산에 가지는 신성한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청나라 이전 장백산 제사공간의 특징

장백산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과거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왔다. 장백산은 산해경(山海經)에 불함산(不咸山)<sup>2)</sup>으로 처음

기록된다[8]. 불함산은 신지산(神之山)이라는 뜻으로서 신령의 사적(史蹟)을 가리킨다. 글단국지(契丹國志)에서는 장백산이 백의관음(白衣觀音)이 소거하는 곳으로 금수(禽獸)가 모두 백색이라고 기록된다[9]. 산신경배에 불교사상을 걸쳐놓았다. 통전(通典)에서는 장백산을 신응공(神應公)으로 책명 하였다[10]. 김세종<sup>3)</sup>대정십이년(金世宗大定十二年)에는 왕을 출세시킨 곳으로 흥국령응왕(興國靈應王)으로 책명 하였으며 북산에 묘우를 조성하고 매년 춘추에 날을 택하여 제사를 지냈다<sup>4)</sup>[11]. 김장종<sup>5)</sup>명창사년(金章宗明昌四年)에는 개천홍도성제(開天弘道聖帝)로 봉호(封號)<sup>6)</sup>하였다[11]. 명대에는 봉호가 없어지고 신<sup>7)</sup>으로만 칭하였다[12].

선진(先秦)부터 금나라(金朝)까지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장백산의 신성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담긴 의미가 변화되었다. 산해경의 산신숭배 사상; 글단국지의 불교 사상; 금나라 왕(王) 혹은 제(帝)로 봉한 출세의 산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 2. 청나라 장백산 제사공간의 특징

황가의 제사공간은 금나라(金代)<sup>8)</sup>에서 시작되었지만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청나라의 망제전이다. 망제전의 생성원인은 장백산이 만족의 발상지였기 때문이다. 조상에 대한 경의, 산에 대한 경의로 인하여 조성되었다. 이러한 제사공간의 조성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희이십년(康熙二十年, 1681년), 삼번지란(三藩之亂)을 평정하고 대만을 통일한 후 청정부는 동북변방에 국력을 강화할 계획 이었고 러시아 제국군대의 침략을 반격하려 했다. 이러한 배경에 강희이십일년(康熙二十一年, 1682년) 강희황제는 처음으로 길림을 순사(巡視)하였고 3월25일에 길림아랍(吉林烏拉)<sup>9)</sup>에서 지방문무관원을 접견하고 대규모 열병의식(閱兵儀式)을 진행하였으며 태자 및 황실의 대신들과 같이 송화강판(松花江畔)에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냈고 망사장백산(望祀長白山)<sup>10)</sup>이라는 시를 남겼다. 강희이십칠년(康熙二十七年) 늦가을, 강희황제는 재차 길림을 순사했다. 정사, 민정, 변방강화 등 정치적인 요소 외에도 중요시 한 행사는 송화강판에서 장백산신에게 요제(遙祭)<sup>11)</sup>하는 것이었다.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장백산으로 가기 힘들어 송화강판에 임시로 제단을 설치하여 조상에게 요제를 진행하였다[13].

옹정십일년(雍正十一年)에 정전오간(正殿五間), 루패두좌(樓牌兩座)의 규모로 망제전(望祭殿)을 조성하였다(Figure 3)[7]. 또한 제물을 위한 사슴 사육공간 백산녹유(白山鹿圃)<sup>12)</sup>를 조성했다(Figure 4). 도광십사년(道光十四年, 1834년)에 망제전이 장기간 비바람의 침식을 받아 침식한 것을 고려하여 길림공사(吉林公司)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하였다[8]. 장백산망제

전책(長白山望祭殿冊)의 기록을 보면 망제전 규모는 다음과 같다. 5칸(間), 면관(面寬) 2장(丈), 진심(進深) 2장(丈), 주고(柱高) 8척(尺)9촌(寸), 주변 랑(廊)의 깊이는 4척(尺)이다<sup>3)</sup> [8]. 문화혁명 초기에 건물이 모두 훼손 되었으며 현재는 기초만 남아있다[14].



Figure 3. Wangji Temple(望祭殿)  
(From: 南滿洲鐵道旅行案内,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24)



Figure 4. Baishan Luyou(白山鹿園)  
(From: 南滿洲鐵道旅行案内,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24)

### 1) 망제전과 장백산의 풍수적인 관계

망제전이 위치한 소백산은 길림아랍서교의 판산(板山) 현 소백산(小白山)에 위치해 있다[15]. 소백산은 풍수적인 길지로서 장백산의 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풍수적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쪽에 자리잡고 남쪽(장백산)을 향한 위치에 처해 있다. 또한 조종산(祖宗山)인 장백산과 맥(脈)을 같이 하며 소백산에서 장백산까지의 시야는 막히지 않고 트여 있다<sup>14)</sup>. 그리고 소백산의 형상은 엷드려 있는 호랑이 형상 즉 와호(臥虎)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향을 보면 머리가 북쪽, 꼬리가 남쪽을 향하였다<sup>15)</sup>. 이러한 형상은 조종산인 장백산에 순응하는 형상을 말한다. 소백산의 순응적인 풍수형태, 조종산(장백산)과의 맥 연결, 시야의 트임은 장백산의 좋은 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형국으로서 최상의 길지이다(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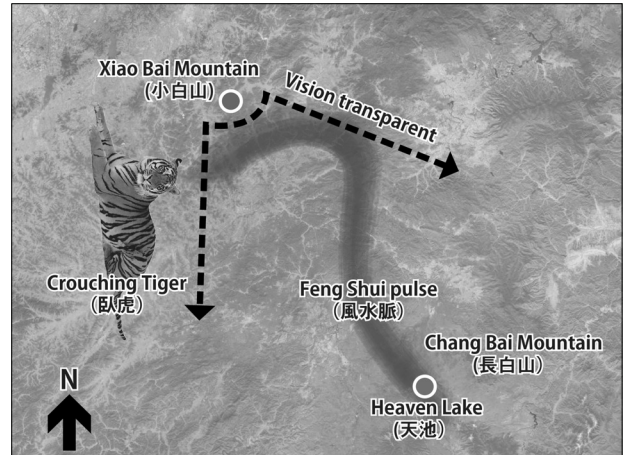


Figure 5. Analysis of Feng Shui of Xiaobai Mountain

### 2) 황가 제사활동의 특징

장백산은 당시 중국 최고의 성산이기에 국가적인 행사에서 가장 중요시하였고 또한 지위가 높은 제사의례와 제사악무가 존재했다.

강희제는 1673년에 제사의례를 오악(五嶽)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라고<sup>16)</sup> 규정하였다. 제사의례는 두 가지 유형인 월제(月祭) 및 춘추제(春秋祭)로 진행하였다. 월제는 매월 초하루에 이를 동안 지내는 제사로서 길림장군이 성경예부(盛京禮部)의 독축관(讀祝官), 전의관(典儀官), 인관(引官)과 같이 망제전에 가서 향을 올리는 제사이다. 춘추제는 월제보다 큰 규모로서 매년에 두 번 시행하며 황제가 직접 혹은 황실관원을 파견하여 길림장군의 동행 하에 망제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 외에 나라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일시적인 제사의례를 진행하기도 했다. 황제가 직접 망제전에 가서 요제 한 것은 건륭황제<sup>17)</sup>이다. 그 뒤 가경(嘉慶), 도광(道光), 함풍(咸豐), 동치(同治), 광서(光緒) 황제는 황실의 대리(大吏)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다. 1934년 만주국시기에 부의(溥?)가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행할 때 제기(祭器)로는 작(爵), 등(登), 형(銅), 보(簠), 변(筥), 두(豆), 존(尊), 비(篚), 조(俎)를 사용하였고 제물은 삼생(三牲)으로서 산록20마리, 청우20마리, 돼지20마리를 사용하였고 술과 향은 원주(元酒), 약주(藥酒), 백산향(白山香)을 사용하였다[16].

제사악무 시 악기 편종(編鐘)1, 편형(編磬)1, 건고(建鼓)1, 금(琴)10, 슬(瑟)4, 소(簫)10, 적(笛)10, 지(篋), 배소(排簫)2, 훈(壎)2, 생(笙)10, 박부(搏拊)2, 축(祝)1, 어(敵)1, 휘(麾)1이다. 그리고 악무하는 사람은 가성(歌聲)10, 문무생(文舞生)64, 무무생(武舞生)64, 집절(執節)4을 사용했다<sup>18)</sup>[16].

또한 악무의 의상에 대해서도 규제 하였다. 악무(樂舞)를 하는 사람은 청포(靑袍); 무무(武舞)를 하는 사람은 홍단소금화



포(紅緞銷金花袍): 문무생(文武生), 악생(樂生), 분향악무생(焚香樂舞生)은 흥단보포를 입는 규제가 존재했다[16].

황가제사 활동을 살펴보면 장백산 지역만의 특유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의례는 월제, 춘추제 및 일시적으로 거행하였고 제도화된 제물과 제기가 존재했다. 제사악무는 제도화된 악기, 악무자의 옷차림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였다. 특히 황제가 직접 방문하여 제사의례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당시 장백산이 오악보다 더 높은 신성성을 가진 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제사공간 망제전(望祭殿)의 의미

망제전은 청나라의 역대황제가 군권신수(君權神授)<sup>19)</sup>의 이론에 근거하여 조상제사, 장백산에 대한 제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사공간이다. 장백산을 신성한 산으로 봉한 것은 과거의 조상 발원지, 건국시작의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이다. 만족의 선조들이 장백산 지역에서 생활하고 나라를 부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장백산을 신성한 산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당시 법적으로 오악과 같은 순위에 있었고 의례행사도 동일하였다. 청나라 이전의 황제들은 태산을 신성한 산으로 봉한 반면 청나라 황제는 장백산을 신성한 산으로 봉하였다. 이는 신성한 산의 성격이 중원에서 동북지역으로 이전된 것을 가리킨다. 특히 만족이 통치권을 소유한 시대에 지정한 새로운 신성한 산으로서 그들의 민족인 만족한테는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신성한 산이 생기게 된 것이다.

## 3. 중화민국 이후 장백산의 제사공간 특징

중화민국시기 황가 제사공간인 망제전이 청정부의 멸망과 같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민간 제사공간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봉금정책의 해제에 의한 이민의 수용을 거쳐 장백산 지역에는 한족과 조선족이 유입하였으며 그들이 장백산 생태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민간신앙과 제사형태를 형성하였다. 민간 제사공간이 생성된 원인을 보면 정착민이 생태환경에서 기본적인 채집활동 즉 생산활동을 행하면서 파생한 것이다.

### 1) 여래사(如來寺)의 특징

여래사는 1929년에 장원준(張元俊)이 주축하여 건립하였고 회음사(雷音寺)로 불리기도 한다[14]. 과거의 정착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백산에서 야생산삼을 캐는 생산활동을 주로 하였다. 중화민국시기 무송현(撫松縣) 마을 사람들이 장백산에 야생산삼을 캐러 가는 길은 선인동(仙人洞) 문 앞을 경과하는 방산로(放山路)<sup>20)</sup> 하나밖에 없었다[14]. 여래사는 방산로를 따라 걸어 가다보면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여래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산삼을 캐러 가는 주민이고 제사내용을 보면 산으로 올라갈 때 즉 생산행위를 시작할 때와 산에서 내려올 때 생산행위를 마칠 때 두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올라 갈 때는 부처님에게 큰 산삼을 캐게 달라고 빌고 내려올 때는 많이 캐던 적게 캐던 부처님에게 배알을 하여 존경을 표시했다. 정주민들이 생산과정에서 장백산 생태자원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산신노파두묘(山神老把頭廟)의 특징

산신노파두묘는 정착민이 생산활동을 할 때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서 여래사와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하지만 여래사의 신적 대상이 부처님인 반면 산신노파두는 과거의 실존 인물 손량(孫亮)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산신노파두묘는 특정한 한 장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여 제사를 지내기에 마을 및 산속 곳곳에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산인은 인삼을 캐러갔다 오는 과정에 두 번 산신노파두 묘지를 조성한다. 우선 생산활동을 하기 전에 즉 산에 들어가기 전에 묘지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대다수 사람들이 손량이 죽은 길목 옆에 노파두 묘지를 조성하고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이곳과 멀리 떨어진 방산인은 석립 밭,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 옆, 산비탈 밑에 돌무더기로 산신노파두 묘를 조성하고 제사를 지낸다. 묘지를 조성한 뒤 묘위에 빨간색 천을 걸쳐놓는다. 산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고 한 번 더 묘지를 조성한다. 우선 동북방향에 큰 나무를 선택한다. 도끼로 나무 뿌리부분을 오(凹)자형으로 자르고 위에 빨간색 천을 걸쳐놓는다. 거처를 땅굴에 조성한 지역은 주변에 큰 나무가 없기에 목판을 쌓아서 묘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묘지는 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묘지를 조성하고 방산인 집단의 우두머리가 인솔하여 제물을 올리고 향로를 피우면서 평안과 풍작을 빈다. 제사의식은 단순 하지만 경건하게 지낸다. 산속에서 묘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산신노파두가 묘지에 와서 보호해 주고 많은 인삼을 캐게 해달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 3) 민간 제사 활동 특징

장백산 지역의 민간제사 활동을 보면 산신노파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삿날, 제사금기, 방산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력 3월16일은 산신노파두절(山神老把頭節)로서 장백산 지역 주민들한테는 청명과 추석보다 더 중요한 제삿날이다[17]. 현재 산신노파두절은 장백산 지역의 독특한 소수민족 문화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중국 무형문화재 등재 예정목록에 추가되어있다[18]. 마을의 원주민은 이날 일시적으로 목판 혹은 돌무더기로 산비탈, 석동(石洞), 나무 동굴 등 곳곳에 묘지를 조성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진행한다.

민간제사에서 금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방산인 집단을 형성할 때 숫자 2와 4를 피한다. 2명이 동시에 인삼을 찾았을 때 다툼이 일어나면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4(四)는 죽을 사(死)자와 글자의 음이 같아서 피한다. 또한 산에 오르는 날짜도 매월 3, 13, 23일을 금일(禁日)로 하고 산 속에 들어가면 매월 1, 15일은 인삼을 캐지 못한다. 산신노파두를 존경하는 풍습도 존재한다. 사람들이 나무 그루터기에 앉지 않는다. 나무 그루터기는 산신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소나무 관솔에 앉지 못한다. 산신의 초불이기 때문이다. 검게 태운 나무위에 앉지 못한다. 산신의 필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통하여 수확한 산물(産物)외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러한 금기행위는 산신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것이다.

장백산의 채삼습속은 방산언어를 가지고 있다. 함산(喊山)은 인삼을 발견했다고 전하는 것이다. 응산(應山)은 인삼의 년품(年品)을 묻는 것이다. 함공산(喊空山)은 인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방산인들을 격려하고 분발시키는 말이다. 또한 채삼 과정에 큰 것을 캐고 작은 것은 남겨둔다. 수선(樹鮮)과 수류(水流)를 보고 방향을 판별한다. 채삼습속과 방산언어는 민간이 채집문화와 장백산 생태자원의 관계 속에서 파생한 생존기술이다. 이러한 생존기술은 장백산의 독특한 무형문화로서 현재 구비전승을 유지하며 지속되고 있다.

#### 4) 민간제사공간의 의미

장백산의 자연자원을 생활의 내원(來源)으로 여기는 소수 민족은 장백산 지역적 특색이 있는 새로운 민간신앙을 탄생시켰다. 봉금정책의 해제로 인해 산동반도에서 장백산 지역으로 이주한 한족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파생한 새로운 민간신앙은 내용과 형태에서 장백산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민간제사에는 그들의 생존기술과 생활경험이 담겨져 있다.

여래사는 신격화된 인간 부처님에게 배알을 하고 산신노파두묘는 인격화된 신(神) 산신 노파두에게 제사를 지낸다. 신격화 된 인간, 인격화된 신의 신적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배경이 되는 장백산 생태환경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특징이 존재했다.

### 4. 장백산 제사공간의 변화 및 해석

장백산의 제사공간은 각각 특정한 시대에 조성된 공간이다. 장백산과의 공간적 관계를 보면 황제의 권력공간에서 공공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으로 나타난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수직적인 공간은 권력을 상징하고 수평적인 공간은 순종을 상징한다고 지적하였다[19].

망제전이 조성된 곳을 보면 장백산과 풍수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길지에 조성되어 장백산의 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소백산에서 높은 장백산에 요제(遙祭)를 지내는 행위로서 수직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이는 권력을 상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제전과는 반대로 한족 성산 태산의 옥황정(玉皇頂)은 산 정상에 위치한다. 옥황정은 정상에서 하늘에 제천하는 형태이고 망제전은 장백산 자체에 제사를 지내는 형태이다. 이는 하늘의 기(氣) 보다 장백산 자체의 기(氣)와 신성성을 중요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래사와 장백산의 풍수적인 관계를 보면 배산형국으로서 풍수적 길지로 나타났다. 반면 산신노파두묘는 생산활동 과정에 일시적으로 마을 곳곳 또는 산 곳곳에 조성된 공간으로서 풍수적 길지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래사와 산신노파두묘에서 장백산에 제사를 행하는 위치와 방향을 보면 모두 수평적인 공간관계를 형성하므로 순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장백산 제사공간의 위치를 역사의 축에서 확인해 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의 전이된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장백산에서 생활하는 주민 생활반경이 산 안쪽으로 전이된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백산 제사공간의 문화과정 의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해경의 산신송배, 글단국지의 불교, 금나라 왕(王) 혹은 제(帝)로 봉한 출세의 산, 청나라 군권신수(君權神授) 이론에 근거하여 조상제사, 장백산제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사공간, 중화민국시기 이후는 생산수단을 통하여 파생한 민간제사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황권소유의 제사공간에서 황권의 해체 이후 이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개발과정에 형성된 민간의 제사공간으로 변화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건시기 장백산 지역에서 정권을 잡은 민족은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장백산에 봉축을 시행 하면서 장백산에 신성성을 부여하였다. 장백산 신성성은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형성하는데 이는 장백산 지역의 소수민족이 창립한 나라의 규모에 비례하였다. 하여 청나라에는 한족의 성산 태산보다 더 신성한 중국 최고의 성산으로 지정되면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봉건사회 멸망으로 장백산 신성성은 의미적 변화를 형성한다. 국가적인 제도와 백성의 인식 변화로 인해 장백산은 나라를 대변하는 신성한 역할보다도 지역에 생활하는 정착민한테 신성한 대상으로 작용 하였다. 이는 주로 장백산 지역의 정착민들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만물유신론을 기반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제사 행위로 나타났고 신적 대상이 인격화된 신, 신격화된 인간 두 가지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백산 제사공간은 황권의 전유물 국가적 상징의 공간에서 민간이 의지하는 대상으로 성격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신적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보

면 사람과 신의 합일을 추구하고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관념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백산 생태환경에 의지하여 그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배경, 문화적 표준으로 장백산에 신성성을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제사공간이 나타나고 신적대상이 변화를 이루었지만 신성성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백산 제사공간 문화경관은 시대별 특징에 따라 표현된 소수민족 문화적 표준과 생태환경의 상호관계에 의해 누적된 내적, 외적인 다양한 형태의 신성한 공간으로 정의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특정한 시대에 장백산 지역에 조성된 제사공간을 문화경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장백산의 신성성이 역사 속에서의 변화 및 정권의 교체와 민족의 변화 속에서도 신성성이 유지된 이유에 대하여 해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시기로 과도하면서 겪은 정권의 교체와 민족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의 수용성으로 인하여 장백산의 제사성격과 신적대상이 변화했다.

둘째, 청나라의 황가 제사공간인 망제전은 권위적인 공간으로 만족만의 유일한 제사공간과 문화를 형성했고 중화민국 시기에는 한족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겪으면서 방산인 사이에서 새로운 민간신앙이 탄생했으며 따라서 제사공간인 여래사, 산신노파두묘가 조성되었다.

셋째, 제사공간과 장백산을 공간적으로 보면 망제전은 수직적인 공간으로 권력적인 공간이고 여래사와 산신노파두묘는 장백산과 수평적인 공간에 입지되어 순종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사의례를 보면 청나라의 망제전은 만족만의 유일한 제사의례이지만 황권의 폐지에 따라 단절된다. 현재는 민간제사의례가 일상화 되어있고 청나라의 제사의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장백산에 대한 신성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장백산 제사공간은 청나라의 단일한 제사문화에서 정권의 교체와 다민족의 문화에 대한 수용을 거쳐 변화하였다. 현재는 상호수용을 통하여 중첩된 제사공간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장백산 제사공간의 신성성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다층적인 개념 및 의미를 제시하였고, 또한 문화경관으로서 제사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밝혔다. 북한의 백두산과 중국의 장백산은 같은 산으로서 제사문화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북한 백두산 제사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중국 장백산과의 관계, 비교연구 등이 후속과제로 남는다.

- 주 1) 장백산이란 명칭은 백두산의 중국식 한자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청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국측에서의 문화경관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중국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 주 2) <山海經>: 大荒之中, 有山名不咸, 在蘇肅慎氏之國.
- 주 3) 金朝第五位皇帝
- 주 4) <金史史記>: 金世宗大定十二年, 以長白山在其發迹“興王之地”, 敕封長白山“興國靈應王”号, 并在其北山地建廟宇, 于每年春秋二仲月擇日致祭.
- 주 5) <金史史記>: 金朝第六位皇帝
- 주 6) (왕이) 토지·작위(爵位)·작품(爵品) 등을 하사하다
- 주 7) <皇朝文獻通考>, 卷100, <郊社考·山川十>
- 주 8) <金史世紀>: 昭祖耀武至此祭祀, 志大定年封長白山神爲興國靈應王, 建廟宇, 開天宏聖帝廟
- 주 9) 현 길림시(吉林市)
- 주 10) <長白山志>: 名山鐘靈秀, 二水發眞源. 翠靄籠天窟, 紅云擁地根. 千秋佳兆啓, 一代典儀尊. 翹首瞻晴昊, 峩峩逼帝閭
- 주 11) 멀리 향하여 치제(致祭)하는 제사행위
- 주 12) 당시 길림팔경(吉林八景) 중 하나로 선정
- 주 13) 長白山望祭殿共有5間, 面寬9尺, 進深2丈, 柱高8尺9寸, 周圍廊各深4尺等
- 주 14) 小山勝丘壑, 遠與長白通
- 주 15) 以其狀如頭北尾南的一只臥虎
- 주 16) 賚敕封長白山之神, 祀典如五岳
- 주 17) <清實錄>, 乾隆十九年
- 주 18) 清實錄, 祭祀
- 주 19) 군주의 권력을 신이 수여하다.
- 주 20) 東北地區對進山採挖野生人參這一行當的稱謂.

## REFERENCES

- [1] Jilin Local Chronicles committee(2002). Annals of Changbai Mountain, Jilin. p.29.
- [2]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 [3] Si, M. Q.(2011). Records of the Historian, Hunan: Yulu Publishing. p.7.
- [4] Li, X. D.(1985).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Beijing: Science Publishing. p.45.
- [5] Young Ai Seo(2015). Seoul Namsan as Historic Urban Landscape From Multiple Perspective of Mountain Park and City Wall, Seoul National University. pp.7-11.
- [6] Mike Crang(1998).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pp.22-23.
- [7] Unesco(2015). Operational Guidelines. p.65.
- [8] Jia, L. F.(2015). Shanhai Jing. Beijing: United Publishing. p.173.
- [9] Jia, J. Y.(2014). Qidan Guozhi.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p.47.
- [10] Du, Y.(1988). Tongdian.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p.32.
- [11] Tuo, T.(2013). Jin Shi.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pp.23-58.
- [12] Zhang, T. Y.(1787). Huangquan Wenxian Tongkao.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p.83.
- [13] Chen, Z. H.(2012). Qingshilu. Beijing: Beijing Unversity Publishing. pp.52-78.
- [14] Changbai Mountain Government network. <http://cbs.jl.gov.cn/web/main.aspx>
- [15] Gu, C. Y.(1969). Zengding Jilin Dili Jiyao. Lilin: Jilin Province Publishing. p.5.



- [16] Zhang, W. P.(1834). Changbai Mountain Wangji Temple.
- [17] Sun, S. F.(1996). Shanshen Laobotou and its worship practices. Beijing: Folklore Research.
- [18] Baidu Baike. <http://baike.baidu.com/>
- [19] Henri Lefebvre(1992), Production of Space, Wiley-Blackwell, p.72.
- [20] Chung, Soojin(2004). Study on the Mt. Namsan in Kyeongju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acred pla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21] Li, Z. R.(2000). A Study on the Rites of Offering Sacrifices to the Heaven on the Summit of the Changbai Mountain and Its Characteristics in the Qin Dynasty. Beijing: Journal of inner mongolia polytechnic university.
- [22] Zhang, Y. F.(2007). Changbai Mountain Culture Summary, Beijing: Culture and education.
- [23] Liu, H. S.(2003). Definition of changbai mountain culture and others. Beijing: China's borderland history and geography studies.
- [24] Cho Bup Jong(2009). The origin of religious faith about Bakdusan (白頭山) and designation of Manchulia(滿洲) in ancient-middle age in Korea History. Seoul: Korea history research.
- [25] Park, Seung Gyu(1995). Cultural geography latest developments. Seoul: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 [26] Yoon Chung Sup(1984). A Study on a planning for historic environment in urban pla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27] Peter Jackson(1989).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don: Unwin Hyman.
- [28] Denis Cosgrove & Stephen Daniels(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9] James Duncan and Nancy Duncan(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2).

---

원 고 접 수 일: 2016년 4월 26일  
심 사 일: 2016년 5월 25일 (1차)  
: 2016년 11월 24일 (2차)  
: 2016년 12월 26일 (3차)  
게 재 확 정 일: 2016년 12월 2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